"아베 발언으로 韓·中과 관계 악화"

日 언론들, 아베총리 '강제성 여부' 집착 비판

아베 신조 총리의 '군대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는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개선 기미를 보이던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재차 악화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6일 주요 일간지로는 유일하게 사설을 싣고 아베 총리가 1993년의 고노 담화 계승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광의'와 '협의'라는 말까지 동원, 강제성 여부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의 한마디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총리 자신이 과거 고노 담화를 비판하는 의원 모임의 선두에 서온 전력이 있기 때문임을 들면서 "미세한 정의나 구분에 집착하는 것은 일본을 대표하는 입장의 총리로서는 깨끗한 자세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입각해 위안부에 대한 보상 사업에 나서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것은 전쟁으로 유린당한 아시아 각국과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라면서, 총리는 정권차원에서 계승 방침을 정한 이상 오해를 초래할 발언을 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군대위안부를 '일본에 의한 강제적 군대 매춘부'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미 하원 결의안이 아베 총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 같다고 전하면서, 그가 의회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죄할 수 없다고 강조함에 따라 미.일 관계를 꼬이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고노 담화를 전부 부정하게 될 경우 다음달로 예정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문 등에 영향이 줄 것을 우려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응에서 자민당 보수파와 한국, 그리고 미국 진보파 사이에 끼어있다면서, 애초에 고노 담화에 부정적이었던 그가 과거 자신의 발언과 일치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와 광의라는 구분까지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쿄=연합뉴스

印尼 두차례 강진…70명 사망·건물 수백동 붕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지역에서 6일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두차례 발생, 최소 70명이 숨지고 수백채의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지질연구소(USGS)는 이날 오전 10시 49분(이하 현지시간)에 수마트라 서부 해안에 위치한 파당으로부터 50㎞, 지하 33㎞ 지점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1차 지진 후 여진이 계속되다가 2시간 후 규모 6.0의 2차 지진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질학자들은 최초 지진은 규모가 5.8이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대변인은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최소 70명이 숨진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수라힘 솔록 시장은 엘-신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금까지 솔록에서만 최소 31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수십 채의 건물이 무너져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학교에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불이 나 전소됐다고 덧붙였다.

엘-신타 라디오 방송은 솔록의 국영 은행을 포함해 많은 건물이 무너져내리면서 사람들이 갇혀 있으며 지진 발생 당시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우트진 수디아나 서부 수마트라주 경찰청장은 AFP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바투상카르인데 전화선이 끊겨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은 진앙으로부터 430㎞ 떨어진 싱가포르에서도 감지돼 일부 건물에서는 대피 소동을 벌였다고 싱가포르 TV방송국이 보도했으며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부정적 영향 끼치는 나라' 北 4위

BBC 조사, 1위 이스라엘

세계인들은 이스라엘, 이란, 미국에 이어 북한을 세계에서 4번째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영국의 BBC 월드서비스 라디오가 최근 전 세계 27개국 2만8천명을 대상으로 12개국가를 제시한 뒤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각각 조사한 결과 부정적 영향 순위에서 북한이 4위를 차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56%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꼽은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해 가장 부정적 영향국으로 꼽혔고, 이스라엘과 상극관계인 이란은 '부정적'이란 의견이 54%, '긍정적'이란 의견이 18%로 두번째 부정적 영향국으로 지목됐다.

또 냉전 이후 초유일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51%로 '긍정적'(30%)이라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고, 북한은 '부정적' 48%, '긍정적' 1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를 이끈 미국 메릴랜드대학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의 스티븐 컬 박사는 "세계인들은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긍정적·부정적 영향국 후보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전남 섬 개발 프랑스에서 배운다

㊤ '미션 임파서블' 그랑모뜨 개발

그랑모뜨 해변에 한 척당 10억~100억원에 이르는 요트가 빼곡히 정박해 있다. 그랑모뜨 시청은 요트 정박료로 한 척당 연 500만원 가량을 받는다. 멀리 뒤편에 그랑모뜨의 명물로 자리잡은 피라미드 형 호텔과 아파트가 죽 늘어서 있다.

늪지대가 해양 레포츠 천국으로

전남도에는 1천965개의 섬이 있다. 전국에 산재한 3천133개의 섬 가운데 63%, 총 해안선 길이 1만2천902㎞의 50%를 전남이 갖고 있다. 그러나 전남의 섬과 해안선은 대다수가 방치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섬·해안개발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시찰'은 전남지역 섬과 해안선 개발에 많은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제공했다. 해양문화의 선진지로 꼽히는 프랑스가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해양 개발방식과 형태를 둘러보고, 전남지역 섬과 해안선을 개발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프랑스 남부의 그랑모뜨(La Grande Motte)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해안도시로, 프랑스 정부가 30년의 세월에 걸쳐 개발한 종합 휴양·레저도시다. 최고 성수기인 7월15일부터 한 달간 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요트를 비롯한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등 연간 120만여명이 찾을 정도로 프랑스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강력한 개발 의지…無에서 有 창조

그랑모뜨는 그러나 30여 년 전 개발이 시작되던 때만 해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한 늪지대에 불과했다. 그런 그랑모뜨를 오늘날 요트항과 마리나, 리조트를 갖춘 세계적 휴양도시로 바꿔놓은 것은 프랑스 정부가 소위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로 불리는 '랑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해안 개발계획'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해외로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관광객으로 인해 엄청난 관광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59년,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해안선 길이 220㎞, 폭 20㎞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랑독·루시옹 지역을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하려는 구상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1963년 그랑모뜨를 비롯한 랑독·루시옹 지역 개발을 전담할 '해양관광개발본부'를 설치하고, 최고 책임자로 임명된 '피에르 라신'에게 개발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다.

수상의 직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공회의소·은행·국토개발회사 등 민·관이 공동참여한 개발본부에는 해안관광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개발본부는 이 같은 막강한 권한과 추진력에 힘입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랑모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계획을 비밀에 부친 채 그랑모뜨 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개발 대상지역 300만 평을 평당 150원~750원이라는 헐값에 구입,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年 관광객 120만명·수익 5천억원

개발본부는 이어 도시 전체의 개발과 건축디자인을 '장 발라드'라는 당시 30세의 건축가에게 위임했다. 소위 '책임 건축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장 발라드는 그랑모뜨를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으며,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항구와 마리나가 마련된 종합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변 가까이에 건물을 짓지 않고, 도심에 건축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강조한 장 발라드는 특히 도시 전체의 건물 디자인을 피라미드 형태로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살려냈다. 배를 뒤집어 놓은 듯한 피라미드형 건축 양식은 당시에는 비규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그랑모뜨를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와 철도, 항구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광객이 손쉽게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을

책임 건축제 도입, 도시 독창성 살려

마련했다. 그랑모뜨로부터 12㎞ 떨어지 곳에는 국제공항이 들어섰으며, 24㎞ 되는 곳에는 철도역이 위치해 파리에서 테제베(고속열차)로 3시간이면 그랑모뜨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망이 마련됐다. 또 유명 휴양지인 니스에서 그랑모뜨까지 4차선 고속도로도 연결됐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골프장과 항구, 요트클럽, 테니스 코트, 해양레저시설, 승마장 등 대부분의 레저·편의시설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카지노는 민간이 운영하되 수익금의 17%를 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페인으로 향하던 프랑스인 관광객 상당수 그리고 북유럽 국가의 관광객 일부를 흡수하고 있으며, 매년 4억 유로(5천억 원 상당)의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